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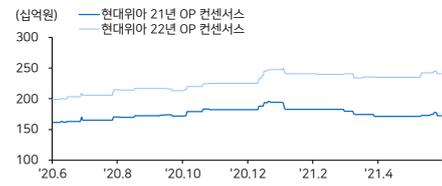


##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국내외 주요 뉴스

### 현대차 '아이오닉6' 내년 출시 앞당겨지나... 변수는? (한국경제)

2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내년 3월 아이오닉6 양산을 시작할 계획. 이렇게 되면 내년 상반기 출시도 가능. 아이오닉5도 올해 3월 양산 개시 이후 한 달 뒤인 4월 19일 국내 첫 출시됨. 아이오닉6의 목표 생산 물량은 연 5만대로 알려졌다. <https://bit.ly/3qtnFDw>

### 현대차, 신차 흥행 기세 잇는다...작은차 시장도 불입 (e대한경제)

레이, '모닝' 등이 속한 경형차 시장은 올 하반기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 현대차가 오는 9월부터 'AX1'을 본격 양산하고 4분기 출시 계획을 밝히며 10년간 지속돼온 레이·모닝·스파크 3강 체제가 깨질 수 있다는 분위기. [석,https://bit.ly/3x6GQwM](https://bit.ly/3x6GQwM)

### 하반기 전기차 쏟아진다...보조금 '2라운드' 경쟁 치열 (파이낸셜뉴스)

전기차 보조금 선정을 위한 자동차 업체들의 2라운드 경쟁이 오는 7월부터 다시 시작될 전망. 올 상반기 수요가 예상보다 늘면서 주요 지자체들이 추경을 통해 하반기부터 보조금을 추가로 투입키로 한데 따른 것. <https://bit.ly/3hb6ud9>

### LG그라나' 출범 D-3...글로벌 토탈터 전자정 회사 꿈꾼다 (ZDNet Korea)

LG전자와 캐나다 마그나인터내셔널의 전기차 파워트레인 분야 합작법인인 'LG그라나 이파워트레인'이 오는 1일 공식 출범함. LG전자는 출자분할을 통해 LG그라나의 지분 100%를 갖게 된다. 이어 마그나는 분할신설회사의 지분 49%를 인수할 예정. <https://bit.ly/3haLHG5>

### 현대차, 터키공장서 'i20 N·N라인' 생산 시작 (THE GURU)

현대차 터키공장(HAOS)은 지난 24일부터 i20 N, i20 N라인 생산에 돌입함. 내달 중 유럽 시장에 출시할 예정. 현대차는 지난 14일 이곳에서 바이온 모델 생산도 시작하여 내달 유럽 전역 소용 배치 계획. <https://bit.ly/3gXr1C5>

### 유럽 완성차도 수소차 진출 서둘러, 현대차 시장 확대 가능성 반갑다 (비즈니스포스트)

BMW, 재규어랜드로버 등 유럽의 주요 완성차 브랜드들이 이르면 2022년부터 잇달아 수소전기차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됨.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현대자동차로서는 초기 수소전기차시장 규모 확대에 수혜가 예상된다. <https://bit.ly/3x4iCTP>

### 전기차 판매량, 두 달 연속 전년 대비 3배 증가 (THE ELEC)

5월 전기차(EV) 판매량이 47만대로 추정됨. 추정대라하면 지난해보다 3배 증가한 수치이며, 중국 시장 선전이 부각됨. 전세계 전기자동차의 절반가량이 중국에서 만들고 판매되는 것으로 조사됨. <https://bit.ly/3y083kR>

### Tesla battery partner CATL extends supply deal to 2025 (Teslarati)

테슬라의 배터리 파트너 CATL은 월요일 테슬라와 배터리를 공급계약을 2025년까지 연장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중국 시장에 대한 테슬라의 장기적 의도가 내포되어 있어 상하이 기가팩토리의 확장에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됨. <https://bit.ly/3h2c6f1>

##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게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